

번식돈의 관리와 분만 준비



지 설 하
(국립중축원장)

양돈경영 수익의 90%는 번식성, 사료이용성, 산육성으로 결정되므로 이에 수반되는 번식돈의 사양체계와 분만관리 여부는 양돈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번식돈의 관리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부전 사양관리

젖을 땀 어미돼지는 몸이 쇠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에너지가 높은 사료를 주어 영양상태를 개선하여 주어야만 발정이 빨리온다. 따라서 이 시기를 휴양기 또는 강정기(flushing period)라고 한다. 그러나 경산돈(sow)의 경우에는 포유말기 비유량이 차츰 감소할 때 母豚에게 급여하는 사료의 양을 줄이지 않고 조정하면 어느 정도 강정사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경산돈(Gilt)에 대하여는 종부전 2~3주경부터 강정사양을 하면 교배시 배란수가 많아져서 복당 산자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Goode 1965). 그러므로 강정기에는 사료를 20% 정도의 증량과 함께 Vitamine 및 Mineral 등을 강화하여 모돈의 체력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동시에 배란수 증가와 재귀 발정일수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임신기의 사양관리

임신기간중 모돈의 영양관리는 산자수 자돈의 생시체중과 육성율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임신전반 60~80일간은 번식돈의 생활사(Life Cycle of Swine) 중에서 가장 긴 일종의 휴양기이므로 경제적인 사료로 제한 급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 사료를 무제한 포식시키면 모돈이 과비하게 되어 태아의 생존율이 떨어져서 산자수가 적을뿐 아니라 분만장애가 많아지고 생시 체중이 적어져서 허약해질 수 있다(Toplis 1983). 따라서 임신중인 모돈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한 사양을 하여야 한다.

다음 표는 임신돈의 체중별에 따른 1일 두당 급여량인바, 이를 2~3회로 나누어 급여하는 것이 좋다.

임신돈의 1일 사료 급여량 (단위: kg)

체중	초산돈		경산돈		비임신돈	사료성분 함량
	임신전기	임신후기	임신전기	임신후기		
130kg	2.3-2.6	2.5-2.8	2.2-2.4	2.3-2.6	1.8-2.0	D.C.P:
150	2.6-2.9	2.8-3.1	2.4-2.9	2.6-2.9	2.0-2.2	10-20%
170	2.9-3.1	3.1-3.4	2.6-2.9	2.9-3.1	2.2-2.4	T.D.N:
190	3.1-3.4	3.4-3.6	2.9-3.1	3.1-3.4	2.4-2.6	65-72%
205	3.4-3.6	3.6-3.9	3.1-3.4	3.4-3.6	2.6-2.8	DE:3,200
225	3.6-3.9	3.9-4.2	3.4-4.0	3.6-3.9	2.8-3.0	kcal/kg

초산돈은 임신기간 중에도 몸의 성장이 계속되므로 경산돈에 비하여 사료급여량이 15% 정도 더 많고, 태아성장이 빨라지는 임신말기에는 전기에 비하여 10~20% 정도 더 올려 급여하여야 한다.

번식중에 있는 돼지에 있어서 특히 유념할 영양소는 성장중인 태아의 정상 발육을 위하여 아미노산, 회분, 염류, 칼슘, 인, 철분, 옥도, Vitamine A, D, E가 더 필요하며, 이는 임신초기 보다는 말기에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된다(N.R.C. 1979). 그러나 부족시에는 유산, 사산, 기형, 미라 등을 유발하여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Leother 1959).

임신말기가 되면 모돈 체중이 급속히 증가하므로 질이 좋은 사료를 먹여야 하지만 분만 직전까지 포식을 시키면 변비의 원인이 되고, 또 배속에 있는 새끼를 압박하게 되므로 나쁘다. 그러므로 분만 7일전부터 농후사료를 약간씩 점차적으로 줄여서 분만 1일 전에는 평소의 반 정도로, 분만시에는 절식하는 것이 좋으며, 동시에 근채류, 청초, 엔실리지 등을 충분히 주어서 소화기능을 증진시킨다.

분만준비

분만실이나 분만틀은 1개월 이상 비워서 양재물 2%와 생석회로 완전소독, 수세후 건조시킨 다음 포르말린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번식돈의 분만돈사 입식은 적어도 분만 예정일 2주전까지는 입식되어 한칸에 1두씩 수용하여 개체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입식된 모돈은 크레졸 3%액으로 온몸통을 깨끗이 씻어 기생충란과 피부병균을 제거한 후 다시 더운 물로 닦아서 소독한다.

자리깃은 깨끗한 벧짚을 3등분 되게 잘라서 바닥에 깔아 어린새끼돼지들이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리깃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추운 겨울에는 바닥의 냉기에 의해서 새끼가 동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리깃의 크기와 양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생자돈은 생후 48시간이 지나야만 자체 체온 조절기능이 생기게 되며, 또한 외기 온도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므로 별도의 분만용 보온상자를 만들어 적외선 전구로 일령별에 따른 온도조절을 해 주어야 한다(Torster 1944). 분만시 또는 포육시의 자돈 압사를 예방하기 위해 분만틀을 설치하므로써 압사에 의한 사고사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 분만에 대비하여 이밖에도 가위, 탈지면, 알코올, 옥도정기, 주사기, 명주실, 저울, 이표기 등을 준비한다.

분만시의 조력

분만이 시작되면 대체로 5~30분 간격으로 새끼를 낳으며, 한배 새끼를 모두 분만하는데 2~3시간이 소요된다. 신생자돈이 분만되면 준비된 탈지면으로 코와 입 주위를 깨끗이 닦고, 이어서 몸에 묻은 점액을 닦아낸다. 또한 배꼽은 몸으로부터 5cm부분을 묶은 후 가위로 자르며, 자른 부위에는 옥도정기를 발라 소독한다. 태반은 새끼가 만출된 후 0.5~3시간 후에 나오게 되는데, 어미돼지는 본능적으로 태반을 먹는 습관이 있으므로 즉시 수거하여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분만이 완료되면 닳빠로 송곳니를 찌른 후 약한 것은 앞쪽으로, 강한 것은 뒤부분의 젖을 포육토록 조정하여 2~3일간만 인위적으로 초유를 받드시 섭취토록 한다.

신생자돈은 철분부족으로 인한 빈혈증(Anemia)을 유발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후 3일령과 10일령에 100mg의 철분을 근육주사하고, 돈콜레라 예방접종은 생후 5주와 7주령에 2회 주사하며, 엔테로바이러스 백신은 4주, 6주령에 주사하는 등 각종 질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